



목표 호소

12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거리 유세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자당 후보의 지지를 연설하고 있다.

<사진=전북타임스>

막오른 대선...전북지역 표심잡기 유세 본격화

12일 각 당 출정 기자회견
민주 도당 93% 득표율 목표
국힘 양당 협치·지지 호소

D-21 6.3 대선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각각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원택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당위원장), 이성운(전주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김동하(전북기독교복합자연합회장), 권기봉, 전영배, 진성스님, 송금복, 황규택, 화일스님, 최찬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서주영 공공수석대변인 등 전북자치도 종교계, 문화·예술인, 기업인, 지역 30여 단체 등이 참석해 “승리의 활시위”를 당겼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채우는 새로운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간 전북 예산은 삭감과 정책적 소외와 더불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스 파행 책임에 전북 자존심은 무너지며,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는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서 도민 희망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힘써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당 선대위는 대한민국 발전 중심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그동안 소외당한 전북자치도의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주력해 전북 미래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특히 민주 도당 선대위는 “전북에서 역사적인 득표율 93%를 목표로 정하고 과감히 전진하겠다”며 “전북 14개 시군 균형 발전 위해 도민 모든 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도당은 전북 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K컬처 메카 육성 △인공 지능(AI)·자율주행 이동체·첨단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국가성장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선대위는 “도당 선대위는 전북 주민들의 ‘농어민 소득 보장,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체감형 변화 실현”을 약속했다.

한편 도당 선대위는 회견 이후 오전 11시부터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전주권 합동유세를 펼쳤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이 힘들었고, 우리 전북도민들은 잠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며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고, 차기 정부에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득표율 93% 압도적

인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배숙 도당위원장(비례)은 전주시 평화동 사거리에서 대선 출정식과 출근길 유세에 올랐다.

조 도당위원장은 도당은 “김문수는 부정부패로 단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없는 청렴한 후보다”라며 전북도민들을 향해 김문수 대선 후보자 지지의 소릴 냈다. 한편 조 도당위원장은, 국힘 대선 경선 사이 지난 9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국힘 후보 단일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불응한 채 의총장을 퇴장하자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김 후보를 잡기 위해 몸으로 막아 세운 의원이다.

또 조의원은 지난 7일 국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촉구 단체행동에 나서 경선을 통과한 김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주 10,11일 사이 한덕수의 대권 후보가 막을 내리자 김문수 지지로 태세를 바꿨다.

이날 조 국힘 도당위원장은 붉은 옷을 입고 유세차량에 올라 구호를 외쳤다.

조 위원장의 구호에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유치 지원 △미래성장동력 새만금사업 완성 △교통인프라 확충 △방산전략산업 육성 △완주-전주 통합 지원 △웰니스관광 도시육성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도당은 “전북 14개 시군 균형 발전 위해 양당 협치에 도민들의 많은 지지·성원”을 호소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현대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스마트 모빌리티·시티’ 협약
모빌리티특화·탄소중립 협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달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례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성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합

계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이재명, ‘빛의 혁명’ 광화문서 대선 출정식

김문수, 중앙선대위 임명장
이준석 “정권 교체 이뤄져야”

6·3 조기 대선 운동 첫날인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등 여야 후보 모두 대선 일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2만 여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따른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자는 숨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 바로 투입될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완주군 용진농협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전북타임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며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경기도 동탄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대전으로 이동해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등 대선 운동 첫날의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에 앞서 새벽 5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의도 중앙당사에 중앙선대위회를 열고,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대

통령선거대책기구 추가 구성을 마쳤다.

김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계치보다도 생생한 현실을 만나는 곳이 가락동 시장”이라며 “이곳에서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이 잘살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했으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 서문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하는 유세활동을 벌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운동 첫날인 이날 중국의 물량과 덩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외교적 감각, 통상 이해, 산업 전반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 공개 출신이면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슬로건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을 공개하고 이날 오전 9시 40분엔 여의도 국회로 향해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 시대정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제21대 대선 후보 총 7명 등록

이재명 1번김문수 2번
이준석 4번등재산신고마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밤 이번 대선 후보로 이재명, 김문수 후보 등 모두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후보는 기호순으로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이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천순이다. 후보자별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재

명 후보는 30억8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천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천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17억4천119만3천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천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이었다.

병역 사항은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사근로여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사근로여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국힘, 새 비대위원장 90년생 김용태 선임

“국민 놀랄 정도로 변화하겠다”

수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이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 35세의 국민의힘 최연소 김용태 의원을 선임했다.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과거 이준석계인 ‘천아용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에 합류하지 않고, 경기포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김문

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당을 쇄신하기 위해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날 열린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김문수 후보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총력

도의회·국기원 등 협력
전담 태스크포스팀 구성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북자치도,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기관들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9일 전북자치도 의회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 등재 신청서 및 시청각 자료 작성’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갖고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를 신청함에 따라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용근 의원과 전북자치도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최재

춘 단장,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고광문 기획처장,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 정상기 관장, 세계태권도산업협회 신창섭 사무총장 등 태권도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오는 2026년 국가유산청 인류무형유산 공모에 제출할 등재 신청서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등재 심사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시청각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5,000만 원에 더해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등 유관기관들이 예산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준비위원회’와 전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제21대 대선 관련 5개 시설 휴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
공보·접수보관 장소 활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운영하는 일부 체육시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휴장한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선거 공보

등 접수, 보관 장소로 활용된다.

이 기간 센터는 휴장하고, 공단은 시설 보수와 환경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산체육관은 1층 배드민턴장이 완산구 개표 장소로 쓰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운영을 중단하며, 선거 당일

인 6월 3일은 지하 배드민턴장을 포함해 체육관 전체가 휴장한다.

덕진실내배드민턴장도 덕진구 개표 장소로 사용돼 오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문을 닫는다.

실내체육관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사전 투표 장소로 운영된다.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오는 6월 3일

투표 장소로 활용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휴장 기간을 활용해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제21대 대선 주요 일정

21대 대선 주요 일정

5월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13일	선거보조금 지급
	18일	1차 TV토론 <경제>
	19일	기타 후보 TV토론
	20~25일	채외투표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23일	2차 TV토론 <사회>
	27일	3차 TV토론 <정치>
	26~29일	선상투표
	29~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1~3차 TV토론 오후 8시 시작

식중독예방 6대 수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물도 기급적이면 끓여먹어요	세척 및 소독하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혀 드세요.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道, 도심항공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청신호

김대중 도의원 조례 통과 교통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도민 이동권 증진 기대

전북자치도에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김대중 도의원

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담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 도민이 첨단 교통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청사진’ 착수

2026~2030년 적용 계획 추진 방향·세부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에서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 추진 방향과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용역수행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화학물질 안전한 취급과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취급사업장 분석, 사고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단계별·연도별 목표와 차등관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 대비부터 사고 대응, 주민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보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진이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은 전북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청사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실 있게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5개년 계획 추진 방향과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청년희망단, 사회공헌활동 ‘앞장’

제9기 단원 매월 봉사활동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전주시의 '청년희망단'이 청년정책 발굴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원 40명이 출범한 이후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곳곳에 매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으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18~39세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전주한옥마을 '썰매기 쪼기 환경 캠페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시역 북요원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희망단 활동에 참여했던 범법법인 한서 소속 송경한 변호사와 이지는 JS컨설팅연구소 대표의 경우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전세사기 피해 등) 해결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지역 실정에 맞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9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총 52개의 청년정책을 전주시에 제안했으며, 이 중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켄 이어 정책 △지역청년 JOB소통 사업 등을 실제 사업으로 반영돼 실제 추진됐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발전과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생각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민 대상 태양광 무료 컨설팅

전북자치도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시민들의 에너지 자립과 전기요금 절감을 돕기 위해 2025년에도 '태양광 무료 컨설팅'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측은 최근 전력 계통의 포화와 변전소의 수용 한계로 인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시민이 자가발전을 통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신청은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중고시설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이 상담 대상에 포

함된다.

지난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00건의 태양광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이 중 60% 이상이 주택, 종교시설,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소비용 상담이었다.

실제 설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상담을 통해 태양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초기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센터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와 적정 용량 △예산 설치 비용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 △정부 및 전주시의 지원 제도 등 설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은 2025년 12월까지 상시 접수되며, 전화 또는 전주시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5·18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전

전북대학교 기록·역사관과 전북대박물관은 '故 이세종 열사 추모전'을 12일부터 31일까지 전북대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세종 열사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1980년 5월의 참혹했던 현장을 담은 유품 40여 점이 공개된다.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다 진압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추락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숨을 거둔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기록되며, 이후 전국적 항쟁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남았다.

전북대 이정환 기록·역사관장은 “이



전시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용기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이들이 찾아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 이동형 아트마켓’ 두 번째 전시

25일까지 오거리문화광장서
지역작가 작품 선포

2025 전주 이동형 아트마켓 개최
인전'이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두 번째
전시행사가 진행된다.

전주 이동형 아트마켓은 전주시
가 지역작가들에게 전시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가
깝고 친숙한 장소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
진되고 있다.

두 번째 전시작가는 '김후남 작
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붓과의 동
행'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후남 작가는 전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서예 분야의 지역작가로,
대표적인 작품으로 '처음빛 사람',

'전주회고', '그대 곁에' 등이 있다.
조정훈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시 장소인 전주 오거리문화광
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장소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
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술과 일상
의 경계를 허무는 시간이 되길 바
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주 이동형 아트마
켓 개인전'은 지난 4월 김효정 작
가를 시작으로 총 8명의 지역작가
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김후남
작가의 전시에 이어 오는 27일부
터 6월 8일까지는 김스미 작가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매주 월요일
은 휴관일이며, 휴서기는 운영되지
않는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보건소, 치매 위험군 인지강화

소리와 색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
신선)는 12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매주 1회씩 총 20회에 걸쳐 경도인지
장애 및 65세 이상 치매 위험군을 대
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문화
로 치유지원사업인 '마음치유, 봄처
럼'에 최종 선정돼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운영된다.

이번 인지강화 프로그램에는 음악
과 미술, 운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리와 색깔 △
청춘 운동회 △정원 만들기 △정원
음악회 등 치매위험 노인들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관련 치매는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인지 강화 프로그
램을 제공해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다양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
매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
로 힘쓰고 있다.

보건소는 또 자체적으로도 인지강
화 프로그램을 총 8회(각 회기당 8
회씩, 총 64회) 운영하며, 시민들의 접
근성 강화를 위해 전주시 5개 치매안
심마을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프
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
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
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
아가야 하는 치매안심도시 전주를 만
들기 위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
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 이자 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16일까지 접수

대출은 전주시역 9개 은행에서 취급
하며, 최대 3.5%의 이자보전율이 적용
된다.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
업, 벤처기업, 우수항토기업 및 이노
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최
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
기업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반기 육성자금에 조기 소진된 것
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며 “이번 마지막 접수를 통해 저금리
융자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업 경쟁력
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 아파트 경매, 전국 최대 하락폭

4월 중 아파트 경매동향
전달 대비 7.6%p 하락
전국 회복, 전북만 반대 흐름

전북지역 4월 중 아파트 경매동향은 (82.9%)으로 전달(90.5%) 대비 7.6%p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경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총 3,175건으로 전월(2,888건) 대비 약 10% 증가로 나타났다.

낙찰률은 40.1%로 전달(39.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85.1%)보다 2.2%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8.3명) 대비 0.5명이 늘어난 8.8명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4건으로 전월(172건) 대비 약 53%가 증가

강남권 접근성이 양호한 광진구와 동작구 아파트 낙찰률 각각 100% 기록. 특히 성동구(110.8%) 2개월 연속 자치구 중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 평균 응찰자 수 8.6명으로 전월(10.6명)보다 2.1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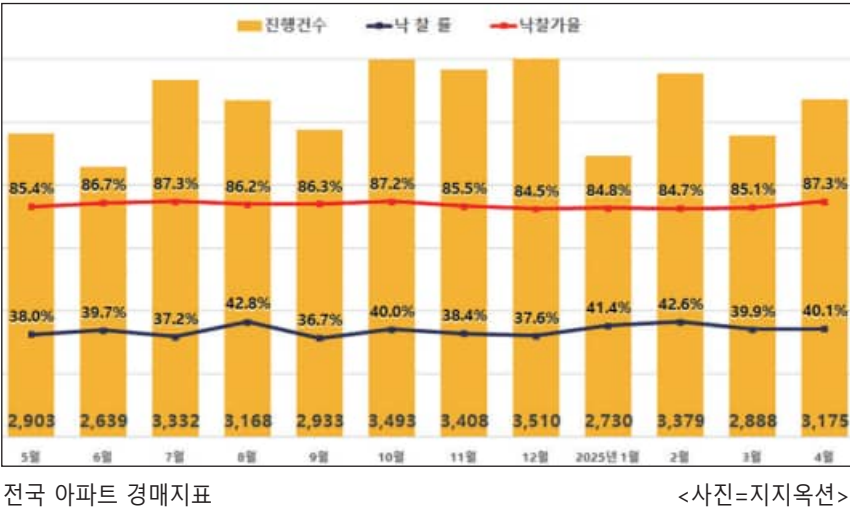
경기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739건으로 전월(650건) 대비 약 14% 증가했다.

낙찰률 47.6%로 전달(43.1%)보다 4.5%p 상승했다.

특히 전세가율 높은 단지 중 소형 아파트 위주에 많은 응찰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아파트는 진행건수 428건으로 전달(319건) 대비 약 34%가 증가. 2006년 3월(475건) 이후 약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82.9%)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78.1%) 대비 4.8%p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지표

<사진=지지옥션>

대전(81.0%)은 4.2%p 오르며 5개월 만에 80%대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83.5%), 울산(84.0%)은 각각 1.9%p, 0.3%p 상승했다. 부산(79.2%)은 전월(79.3%)보다 0.1%p 하락해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80%선을 넘지 못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SW강소기업 선정’ 디지털 산업 생태계 확장

기술력·성장성 도내 5개사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
R&D·홍보·전시회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프트웨어(SW) 산업 기술 자립도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해 ‘2025년 전북 SW강소기업’ 5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교육실에서 ‘SW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어 기술력·시장성·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춘 도내 중소 SW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SW강소기업 선정은 △㈜나우리(스마트 캠퍼스)·㈜아이팍(XR 실감훈련 시스템) △㈜엔지아이(클라우드 플랫폼) △㈜울리고컴퍼니(소상공인 이커머스 마케팅) △㈜고백기술(스마트 주차관제 솔루션) 등 5개사다.

이번 지정은 기업의 핵심 기술력·성장 가능성·시장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

해 이뤄졌으며, 향후 전북 SW산업을 이끌 디지털 선도기업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SW강소기업 지정제도”는 전북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중핵 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략사업 선정된 기업은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R&D 지원 △SW 제품 기획 컨설팅 및 시장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SW강소기업간 체계적인 교류·협력 활동 지원, △SW·AI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이 지원된다.

도는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기획→사업화→수출 확장까지 단계별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 SW강소기업은 지역 디지털 경제의 혁신 동력”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전북도는 지역 소프트웨어(SW) 산업 기술 자립도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해 ‘2025년 전북 SW강소기업’ 5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5년부터 SW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35개사를 발굴·지원해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농촌 활성화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경제사회서비스위탁기관 모집
관련업 수행·실적 비영리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센터는 지난 3월 김제시 백구면에 준공된 전용시설로,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에 대회의실, 첨단 전자질판이 구비된 강의실 4개, 숙박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췄다.

특히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촌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회적농업 및 지역서비스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위탁 공모는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마을 만들기·농촌재생·귀농귀촌·농촌관광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관은 지원센터의 시설·재산 운영관리와 함께,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농촌 중심의 교육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석대, 남원시와 5년 연속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선정

전북도 주관 지원사업공모
맞춤형 지원·산학연 협력 구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산학협력단과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시제품 제작과 상품 개발, 경영진단 및 멘토링, 컨설팅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과 판로 확대 지원,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

한 정보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도 병행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견인할 예정이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및 환류 시스템도 도입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남원시 소규모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상생과 소통의 장 ‘제2회 NPS 포럼’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3일~14일 양일간 공단 본부(전주시 소재)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확립과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제2회 NP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금개혁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과 국내 전문가 단체와의 학술적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전북지역 기관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식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전문학회 컨퍼런스(4회)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민연금 연구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올해 3월에 실시한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 당선자를 시상한다.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는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우수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학회 컨퍼런스’는 국민연금개혁과 세대간 형평성 여성의 노동시장과 국민연금 기관투자자의 환경·사회·투명(ESG) 정책과 투자전략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관련 학술적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영태 기자



아데카코리아(주)는 지난 12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아데카코리아>

아데카코리아,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캠페인,해결 전환점 되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아데카코리아(주)(대표이사 박종석)는 지난 12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행 중인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다. 이날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이길 차관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종석 아데카코리아(주) 대표이

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관련 인식변화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단순히 기업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백승덕(주) 휴비스 공장장과 권오석 엘에스엠 트론(주) 공장장을 지목했다.

아데카코리아(주)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수치첨가제 및 반도체 유전재료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약 안전성’ 국내외 전문가 모여 발전 방안 논의

농진청 농약위해성 학술대회
첨단독성시험법 사례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국립농업과학원은 13일~14일 이틀간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 분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첨단독성시험법을 활용한 농약위해성평가 학술대회’를 연다.

첨단독성시험법(NAMs, New Approach Methodologies)이란 농약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독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최신 기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세포 기반 실험, 컴퓨팅 기술 활용 독성예측, 이를 종합한 통합위해성 평가방법 모두를 뜻한다.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 한국농약과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독성평가 전문가와 농약 등록·시험 연구기관 담당자, 관련 분야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국립농업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첨단독성시험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13일에는 총 3부로 나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현황과 전망, 농약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동향, 첨단독성평가기법 적용 가능성에 논의하는 자리다”며 “이를 통해 동물실험을 줄이는 안전성평가 방법 도출,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의 유전독성 평가 사례연구 농약 품목의 피부감작성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의 적용성 연구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연구 동물대체시험 관점에서 구조-활성의 정량적 관계(QSAR)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규제 적용 동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본 테이코 대학의 아즈시 미야시타 박사가 ‘누에를 활용한 신약 및 독성평가 연구’와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에는 화학구조 기반의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 독성예측 모형(모델) 실습 & #8710; 제브라피시 배아를 이용한 독성시험 이론 및 실습 등 참가자들이 첨단독성시험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갖는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독성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무 담당자와 농약 독성분야 전문가들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농약 안전성 평가 방법과 정책 개발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국내외 독성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농약 위해성 평가에 첨단독성시험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며 “이를 통해 동물실험을 줄이는 안전성평가 방법 도출,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14개 시군지부, 연체관리 총력

연체감축 전략회의 열어
채권관리 실무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전북본부에서 시군지부 연체감축 전략회의-채권관리 실무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시군지부 연체감축 전략회의에는 전북관내 14개 시·군지부장이 참석해 지역별 연체현황 파악, 향후 중점 추진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연체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또 채권관리 실무교육에는 전북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매

각 및 상각, 경·공매 실무 등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및 내수침체 장기화로 전북 관내 농축협의 연체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에 농협 전북본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전 직원의 현장 지원의 날 활동 등을 통해 연체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무교육 강화, 맞춤 솔루션 제공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연체를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 직무대리 체제 이후 내부갈등 심화

대학평의회 “설문조사 결과 직무대리 불신임 78%”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 된 총장 직무 대리 체제가 들어섰지만,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군산대학교 대학평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대다수 구성원이 총장이 없는 현 상황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지와 요구를 나타냈음에도 대학본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평의회는 “총장이 직위 해제된 후, 454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대학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총장 직무대리에 대한 불신임이 78.85%, 학사구조 개편 반대 72.47%, 교원업적 평가개정 반대 88.76%,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찬



국립군산대학교 대학평의회 기자회견

<사진=전북타임스>

성 77.8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사구조개편의 겨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본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심의 요청 공문만을 발송한 후, 실질적인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무회를 통과시켜 공포했다”며 “교원업적평가 개

정안 역시 심의 없이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학사구조 개편, 규정 개정 등으로 구성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설문조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학본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평의회는 대학본부와 직무대리에게 △의사결정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신속 구성 △심의 과정 무시한 학사구조개편 및 교원업적평가 개정 철회 △총장 직무대리 불신임에 대한 공식 입장 및 향후 거취 표명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전체교수회 심의과정 준수하고 심의결과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본부 관계자는 “대학평의회에서 주장하는 일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사 구조 개편의 경우는 오히려 정원이 80명 늘어나 대학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업적평가 개정의 경우는 2년 전부터 개정 방안을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이 있었다”며 “대학평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대한민국 비보이들 큰 축제, 문화도시 전주서 24일 ‘격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우승 다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보이 배틀이자 국내 최고의 비보이들의 축제인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는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가해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며,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수여돼 총 1800만 원의 대회 상금을 두고 치열한 배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팀이자 전문예술법인단체인



‘라스트포원’이 기획과 홍보, 대회 운영을 맡아 비보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심사위원은 △2024년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여자부 금메달리스트인 비걸 아미(AMI) △역대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최다 우승자인 라스트포원 멤버 신영석(ZERO NINE)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캠퍼라크루의 최동욱(RUSH) △국내 손꼽히는 파워머비 이상진(EAGLE ONE) △서울비보이페스티벌 등 다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브레이킹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신종훈(TRICKXX)이 맡는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DJ로 평가받는 WRECKX(최재화)와 ZESTY(임석웅)가

초청돼 비보이 크루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게 된다. MC는 지난해에 이어 JERRY(김근서)와 DU LOCK(정상현)이 맡는다.

이날 오프닝 공연으로 심사위원 5명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심사위원 쇼케이스가 준비돼 있으며, 게스트 특별공연으로 트래퍼 ‘팔로알토’ △스트릿우먼과 이터2 출연팀인 ‘마네퀸’ △비트박스 음악 ‘도파민’으로 화제를 모은 비트박서원과 헬캣의 ‘썬팻’ 공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게 된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처음 전주에서 선보인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이(브레이킹) 배틀 대회라는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수도이자 비보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북 교육의 새로움 바람 분다

‘전북교육 바람개비’ 결성 교사들 목소리 전달·관철 역할

전북의 현장 교사들이 교육주권자로서 전북 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 바람개비(가칭)’을 만든다.

전북교육 바람개비 준비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5일 전주중북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창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년짜리 교육정책은 정권에 흔들리고, 교육감은 권력과 선거에 매몰된 채 교사와 학생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 위기를 날마다 마주하는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기본권조차 허용되지 않은 교사들이 침묵의 틀을 깨고, 이제는 교육주권자로서 직접 나서려 한다”며 “이번 발대식은 전북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현장에서 출발한 대안적 비전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부, 클럽동호인 대상 재능기부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한몫

전주시 소속 배드민턴선수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는 지난 9일 전주 우림중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 모임인 우림배드민턴클럽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 및 실전 경기 중심의 재능기부 행사를 펼쳤다.

이번 활동은 앞서 지난 3월에 진행된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인 전주시가 지역 스포츠 기반을 다지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배드민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접점을 넓히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과 함께 시민 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 캠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국민연금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의 현직자가

직접 참여해 실무 중심의 직무 멘토링을 진행했다.

또한 외부 면접 전문 강사가 참여해 대상 기관 맞춤형 면접 교육과 실전형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 이공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나사(NASA) 글로벌 캠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

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앨라배마주 헨츠빌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과 인솔자 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

아 선발한다. 각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선발 과정과 선정 협의를 거쳐 학생을 선발,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단계 서류심사(1.5배수)와 2단계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

격자는 8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 최대 우주과학 교육기관인 헌츠빌 U.S. 스페이스 앤 로켓 센터에서 NASA 스페이스 캠프를 체험하고, 미국 명문 대학의 과학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최성민 기자

5월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등산

. 발에 맞는 등산화 착용하기

. 무리하게 산행 하지 않기

놀이시설

. 키제한에 맞춰 이용 하기

. 놀이 기구 마다 바른자세로 이용하기

농기계

. 사용 전 후 점검 하기

. 음주 후 사용하지 않기

천천히 운전 하기

산불

. 라이터등 화기 가져 가지

논, 밭 쓰레기 태우지 않기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배달 참여 예술가 모집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은 ‘2025 군산문화배달·일터로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단체)를 12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노인복지시설, 관계기관·관내 기업체로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군산 시민과 근로자들은 일상에서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며, 예술인들은 가까이에서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월 초 공모를 통해 ‘군산문화배달’ 참여 희망 기관을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에는 앞으로 △전통예술 △음악 △연극 △저글링·버블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하는 예술가와 단체는 총 10팀 내외이며, 공연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전문 문화 예술인(단체)로 한정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csy6510@gunsanc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5월 가정의 달에 고향사랑기부하고 특별혜택!

정읍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풍성한 혜택을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를 진행, 정읍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혜택 외에 추가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거나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혜택과 △정읍 지역의 업선된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담배품(기부금액의 30% 상당)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형태)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자 명단은 오는 6월 중 정읍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어린이 시선으로 담아낸 익산의 문화유산 눈길

익산시는 백제왕궁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 ‘제1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지난 10일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총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화폭에 담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국제 문화 교류 부문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국 진강시와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등 자매·우호도시 어린이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시선과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건강한 노후…통합돌봄 본격

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 받아

익산시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으로 통합돌봄 전담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

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 △전문기관 협업 △통합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통합지원 모델을 설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무인 스마트도서관 시범운영 시작

공설시장북문앞광장에 설치

군산시가 첫 무인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을 공설시장 북문 앞 광장에 설치하고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스마트도서관(Smart Library)’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체계로, 군산시에서는 이번이 첫 도입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독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전통시장과 시민이 함께 머무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에는



군산시가 첫 무인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을 공설시장 북문 앞 광장에 설치했다

<사진=군산시>

신간 도서와 인기 도서를 중심으로 약 50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으며, 군산 시립도서관 도서 대출 회원이라면 1인당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 도서는 14일 이내 ‘스마트도서관(지능화도서관)’으로 반납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시민 품에서 ‘대성황’

독일 뮐하우젠시 대표단 참여

131년 전, 억압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정읍 도심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동학농민혁명, 억압에서 피어난 불꽃’을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제는 15년 만에 정읍 도심인 정읍천 어린이축구장과 시내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기념제는 단순한 과거 재현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가 참여한 것은 물론, 독일 뮐하우젠시 대표단이 함께한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 행렬도 열려 세계 시민들과의 역사적 연대를 이루는 뜻깊은 순간을 만들



었다.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 공연 역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 체험마당,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적인 공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는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

끌며 ‘시민 중심 역사축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대포마을에서는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엄수돼 혁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가람의 삶을 걷다”…익산시, 고택·종갓집 사업 운영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수우재’

익산시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오는 31일 근현대 시조문학의 선구자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무대로 하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삼복지인 가람이어라’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가람에 살아리랴다 △가람의 발자취 등 3가지로 이뤄졌으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병기 선생의 생가이자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인 ‘수우재’를 중심으로 고택과 종갓집이 가진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험을 통해 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시조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람 이병기 선생은 ‘현대시조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조문학의 발전과 고전 국어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수우재는 1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조가

고택으로 안채·사랑채·고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즈넉한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농배움협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00세 어르신께 축하선물

장수 지원 100만 원 상당

정읍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랜 시간 정읍을 지키며 발전에 이바지한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생일이 지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집중신청 기간인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

우, 보호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10종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물품은 △공기청정기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 △온수 매트 △이불세트 △리류(내의)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간강보조식품이다. 어르신들은 신청 시 이 중에서 희망하는 물품 1가지에서 3가지까지 100만원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장수축하물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기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상가 공실률 해소 위한 대책 회의

인구감소·임대료 공실 원인

군산시가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송·소존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2.9%로 2024년 4분기 (21.7%)보다 1.2%p나 증가하여 상권 전반에 위기가 감도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열렸던 대책 회의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8개 부서가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공실 문제의 원

인 분석 △대안 모색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와 임대료 문제가 주로 꼽혔으며, 해결방안으로는 △공공 임대 상가 조성 △청년 창업 지원 △예술 활동 장소 지원 등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실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 취합과 발굴을 결정했고, 앞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복지관, 동네 상점과 ‘장애인 평생학습’ 확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복지관은 지난 9일 지역 내 카페, 제과점, 공방 등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4개 상점 대표들과 함께 ‘지역상생형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일상적인 상업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배움의 현장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

다. 협약에는 △지역 상생형 평생학습사업 공동 기획·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직무 향상 교육·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4개 지역 상점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직무 향상 교육 및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치유 농업으로 시민 건강 챙긴다

익산시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본다.

익산시는 오는 9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사회서비스 기관 이용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치유 효과뿐 아니라 참여 농장의 소득 증대도 함께 도모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치유농장인 스우리

들의정원 치유농장 △봄나루222농장 △익산폴리움과 복지기관을 연계해 운영된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아동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 노인, 아동이다.

참여자들은 레몬 아로마 비누 만들기, 테라리움 제작, 족욕 체험, 프리저브드 무드등 만들기 등 농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전·사후 설문록 구성됐다. 치유 효과뿐 아니라 참여 농장의 소득 증대도 함께 도모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주민 숙원 향교동 주차난 해소

15일 향교지구 주차타워 준공 111면 규모 공영주차 확보 장애인 전기차 공간 확보

남원시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향교동 332번지 일원에 건립된 향교지구 주차타워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장, 도의원, 시의회 의장 및 의원, 향교동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주차타워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교통과장) ▲기념사(남원

시장) ▲축사(시의장, 도의원 등)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향교지구 주차타워는 남원시가 총사업비 37억 원(도비 15억, 시비 15억,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투입해 조성한 도심형 공영주차시설이다. 2024년 3월 15일 착공해, 지난 2025년 4월 30일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주차타워는 철골조 2층 3단 구조, 연면적 2,225㎡, 총 11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아동배려차량·전기차충전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주차타워는 당분간 시범적으로 무료

로 운영되며, 이후 유료로 전환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주차타워가 향후 향교동 일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타워에는 자동 차량 인식시스템, 화재·재난 대응 시스템,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도 함께 구축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차타워 준공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준공식을 통해 시민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서울대, ‘건강장수·힐링’ 지역 브랜딩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도농교류·순창투어 협약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지난 9일 쉼랜드에서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강장수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조비룡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에 대한 뜻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문화적 특성, 고령사회 기술 및 정책 개발 등 다방면의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회원 및 임직원 연수·워크숍 시 쉼랜드 시설 및 프



순창군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지난 9일 쉼랜드서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강장수와 도농교류 활성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순창군>

로그램 지원 ▲순창투어 운영을 통한 도농 간 교류 확대 ▲건강장수·힐링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리더최고위과장 제21기 수강생들의 현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참

가자들은 쉼랜드 견학을 비롯해 강연산 트레킹, 고추장 체험 등 순창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자 중 (주)동남건설산업개발 박남수 대표는 지난 토요일 일정을 마무리하며 고창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세종청사 누비며 국비확보 총력전

유희대 군수, 주요 부처 찾아 수소·식품산단·철도 등 건의

유희대 완주군수가 1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유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완주군 주요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정부의 수소버스 2만대

보급 정책에 발맞춰, 수소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스톱 검사 체계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군에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이 반영돼 수소차 보급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완주 수소특화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등 신규 산단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완주·익산 권역 물동량 증가 예상을 강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화산 운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완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군은 중점사업과 현안사업의 부처 예산안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반영 사업 논리타당성을 보강해 건의 활동을 지속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 부처 예산안 반영률을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95회 춘향제, 지역 특산물 먹거리 ‘홍행’

다양한 맛·가성비 위생 합격점 이벤트·유명 셰프 시식회 눈길

제95회 남원 춘향제가 지난 5월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 제공이 주목 받았다.

올해 4개 권역에 분산 배치된 푸드존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사로잡으며 약 11억3천만원의 매출을 기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했다.

축제 기간 동안 가장 인기있었던 ‘더본 바비큐존’은 닭 바비큐, 터널 삼겹살, 뽕다리살 바비큐 등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 제공해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특히, 축제장 내에서 구



제95회 춘향제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가 크게 주목받으며 11억 3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진=남원시>

매한 영수증 3장을 제시하면 바비큐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연장과 소비 유도를 기대했다.

또한, 유명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은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현장을 방문해 추어튀김 메뉴를 선

보이며 시식회를 진행했다. 해당 메뉴는 방문객들로부터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메뉴인데 너무 맛있다” 등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일반 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합리적인 가격대의 메뉴를 선보여 좋은 평을 받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삼양그룹의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 지난 9일 순창군 고등학교 3학년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순창군>

삼양그룹, 순창 고교생 30명에 장학금

수당재단, 총 3천만원 전달 순창고·순창제일고·동계고

삼양그룹의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사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지난 9일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故 김연수 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1968년에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선발은 각 고등학

교의 추천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과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당재단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순창고 15명, 순창제일고 13명, 동계고 2명 등 총 3개 고등학교에서 30명이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9일 각 학교에서 따로 마련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한편, 수당재단은 순창군과는 2014년부터 인연을 맺고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10명의 고등학생에게 약 1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인구 10만’ 눈앞 완주군, 당면 과제 총력

확대간부회의서 현안 논의 10만 돌파 기념행사 등

완주군은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앞두고 각종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에 대해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현재 인구는 9만 9,935명(12일 기준)으로, 1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군은 이를 기념해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축하행사, 인구 10만 비전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1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강조한 유희대 안주군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 준수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활동 ▲제293회 군의회 정례회 준비 ▲농촌 인력 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하계 풍수해·폭염 대비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업과 내실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서 참가자 모집 시제품 제작지원금·컨설팅 지원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가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2025년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창업경진대회는 창업 문화 확산과 (예비)창업자를 3년 미만의 기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 중 최종평가(발표심사)를 통해 최소 4개팀의 최종입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선정 및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종입상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화 자금(총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진대회 종료 후에도 창업 컨설팅과 입주 기회,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사)를 통해 최소 4개팀의 최종입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선정 및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종입상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화 자금(총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진대회 종료 후에도 창업 컨설팅과 입주 기회,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지역대표무용단과 서도역 공연 협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사매면 서도역에서 수준 높은 현대무용공연 ‘다시 간이역에서’를 선보인다.

‘다시 간이역에서’ 공연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남원시와 김하숙&현대무용단 사포가 협업해 무용 공연을 제작했다.

공연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인 서도역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의 변역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며, 각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한다.

예술감독 김하숙이 이끄는 현대무용단 사포는 1985년 창단해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사포의 겨울 숲, 기억 저편_해월리 362 차마 그 곳이 잊힐리아 등 실험성과 독창성 있는 작



품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는 무용단으로, 현대 무용의 불모지인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다.

‘다시 간이역에서’ 공연은 이달 17일, 18일, 24일, 25일, 10월 25일, 26일에 각각 개최되며 연령 제한 없는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업 정착 돕는 기초영농교육 본격화

완주군이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신규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를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시작했다.

총 26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법률, 작물선택 등 영농에 필요한 기초이론교육과 농기계실습, 선도농가 현장견학 등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열린 개강식에는 완주군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귀농 관련 조언, 완주군 귀농정책 안내, 교육 오리엔테이션,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을 소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오는 7월 3일까지 총 9회, 4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들이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완주군 농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맞춤형 노인돌봄 전문가 양성

남원시(시장 최경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달 12일 오후 마지막 직업교육훈련 ‘맞춤형 노인돌봄전문가’ 과정을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개강한다.

본 과정은 오는 7월 15일까지 총46일간(184시간) 운영되며 급증하는 고령화 인구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세부내용은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으로 경쟁력을 높여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실무와 현장견학, 직무소양교육, 인지활동지도사 자격과정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이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역량을 갖춰 변화하는 취업현장에서 환영받는 귀한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1,269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순창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내동·대가·두승지구 경계 결정을 위한 제1회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강대현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내용은 2024년 내동, 대가, 두승지구 경계결정(1,269필, 471,752.1㎡)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경계는 확정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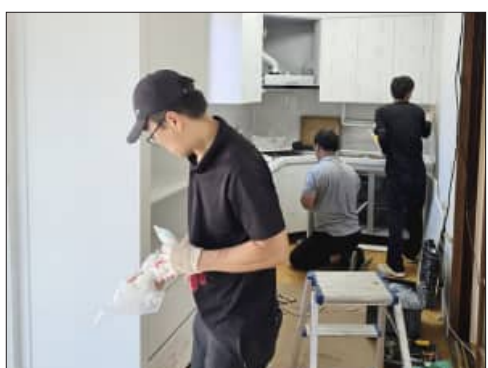
완주군 생활개선회, 고산면 성경샘주간보호센터서 자봉

완주군 생활개선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산면에 위치한 성경샘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생활개선회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 은혜' 노래를 제창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회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과일 떡 등 간식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우성씽크, 독거노인에 사랑의 집수리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업소인 '우성씽크(대표 강우웅)'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성씽크는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싱크대, 불박이장 주문 제작 전문업체로 다년간의 노하우와 꼼꼼한 장인 정신이 깃든 맞춤형 주방가구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지난 9일에도 우성씽크는 관내 가정을 방문해 노후 싱크대를 철거하고, 산뜻한 느낌의 새 제품으로 시공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군산=지송길 기자

재경진안군민회 체육대회 맞아, 고향사랑 기탁행렬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재경진안군민회 읍·면 대항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진 재경진안군민회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재경마령면향우회 손정기 사무국장이 200만 원, 김진술 부회장이 1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기부자들은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안=전철빈 기자

최거성 전주시청 주무관,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응원해준 아내 격려 덕분”

전북자치도 전주시 버스정책과에 근무 중인 최거성 주무관(사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제135회 토목시공기술사 최종시험에서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합격률이 10% 미만인 국내 건설 분야 최고 난이도의 국가기술자격으로, 1차 논술형 평가와 2차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 역대급 난이도를 기록하며 총 1204명의 응시자 중 단 43명만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합격증을 거머쥔 최 주무관은 KCC건설에서 10여 년간 철도 노반 건설공사와 단지 조성공사 등 대형 토목사업을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2019년 전주시청에 입사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최 주무관은 현재 버스정책과에서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담당하며 전주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바쁜 업무와 가정생활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학습에 매진한 최 주무관은 주경야독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실현하며 난관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거성 주무관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믿고 응원해 준 아내의 격려 덕분에 육아와 시험 준비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 경험과 올바른 토목 학문을 바탕으로 전문 건설기술인으로 도약해 전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헌신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발표

오는 15일 시상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을 열고 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에 의한 것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추천대상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명이 접수에서 5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이 최종 선발됐다.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6개 부문 수상자는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학교), 선행



김가온(배영고등학교), 면학 김재현(전북공업고등학교), 예체능 최은지(왕신여자고등학교), 국제화 고성민(국립군산대학교) 장애 임성택(양현고등학교)이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아름다운가게·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 아동·유원

익산시는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공동대표 김진형·김주형)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수납 바구니 등 생활필수품 10종으로, 총 2,100만 원 상당이다. 기탁 물품은 익산시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8개 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형 공동대표는 “이번 후원회 아이들이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아름다운가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안동 산불 피해 성금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연)는 12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전주시 34개 동 소속 656개 경로당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460만3000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자매도시 안동시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전주시의 복지사업인 ‘전주 함께라면’ 나눔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금은 전주시복지재단과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과 ‘전주함께라면’ 나눔사업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성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은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희망이 되길 바라는 정성이 담긴 따뜻한 성금”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남원 보절면 의용소방·자율방범대, 어르신들께 짜장면 대접

보절면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가 지난 어버이날(5월 8일)에 보절면 ‘보절다움센터’에서 어버이날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금의 보절면이 건재할 수 있도록 평생을 애써온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짜장면과 다과를 대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니 더없이 기쁘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제시에 정성 담긴 수경과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90만 원 상당의 수경과 10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태엽 대표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하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봄날 사랑은 세탁기를 타고~ 군산 조촌동, 행복 빨래방 나눔

군산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이웃 25가구를 대상으로 ‘쿨린 UP! 복지 UP! 행복 빨래방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후원하에 7년째 지속되고 있다.

세탁된 이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여 빨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탁하고 배달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걷고, 줄이고, 끄고! 푸른하늘 함께 만들어요.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2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3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一事一言〉



사회적 합의 정치,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

김관순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 대란의 복잡한 난맥상을 풀어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그 의도는 옳고, 방향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적 합의’가 아닐까.

사회적 합의란 단순히 다수결로 갈다 승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양한 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방향을 찾아내는 일이다. 정치란 본디 이런 ‘합의의 기술’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 사회는 이에 익숙하지 않았다.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군사 독재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는 강자의 뜻에 약자가 순응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었다. 강자들은 합의가 아닌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약자들은 침묵하거나 저항하다 짓밟혔다.

이런 관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의료, 부동산, 노동, 기후 위기,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오늘날,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회적 신뢰

는 더욱 약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의료계만 해도 그렇다. 국민들은 흔히 ‘의료계’라는 단일 집단을 상정하지만 실제 의사집단 내부에는 깊은 이해 충돌이 존재한다. 대형병원을 운영 하는 병원장, 중소병원협회 소속 병원들, 전공의, 의대생, 필수과 전문의, 비급여 중심의 비필수과 의사들 모두 입장이 제각각이다.

예컨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직업 가치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지만 중소병원들은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며 환영한다. 서울대병원장도 과거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했다. 또한 필수과(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들은 보험급여 수가에만 의존하는 구조 탓에 수익이 낮고, 비급여 진료 중심의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의료계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모두 고소득자라는 통념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갈라진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루려면 단순히 대한의사회와만 협상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중소병원 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 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과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단일한 주체와 협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복잡한 과

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각하 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합의는 커녕 더 큰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의료 정책 접근을 반 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비단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를 보자. 한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도 요구받았다. 여기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과 신규 수요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한다.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 하나를 결정 할 때마다 이익과 불이익이 갈리고 사회는 심각하게 양분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다만, 이 역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노동환경 등 모든 정책이 긴밀히 연결돼 있고 세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고령층은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해 정책을 짜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모든 세대, 모든 집단이 함께 설득되고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다.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다. 기업들

은 생산비 증가를 우려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걱정한다. 시민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설득, 지원, 조정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는 패도난마가 아니라 느리면서 고통스럽다. 때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생각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그 대가는 더욱 크다. 사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고 승패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치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조율,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는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 간의 조정과 중재의 기술이다. 그리고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본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더 성숙한 시민과 더 섬세한 조정자로서의 정치인이다. 의료, 부동산, 기후 위기, 연금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는 유일한 길 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다. 사회적 합의의 정치, 그 험난한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야 할 이유다.

사 설

본격 대선전, 민주주의 복원을 기대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국민은 또 한 번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의미 넘는다. 이는 헌정질서의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내란과 탄핵, 분열과 혼란을 거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 앞에 서 있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기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헌정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어야 하며 모든 정치 세력은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민주주의 파괴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청산과 당의 자성 없는 참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석열의 출당 조치는 정당성 회복의 시작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강제 단일화, 후보 교체 소동 등 내분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당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자각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이

대로는 보수 정당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회복도 담보할 수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역시 반사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상대의 실정만을 부각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 등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며 누가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둘러싼 여러 위험 신호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암살 위협,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 권력기관 개혁 지연, 경제 회복 지체 등 산적한 과제들이 대선 정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단호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제도적 토양이 필수다.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대결에 집중하고 선거관리 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 잡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원하고 책임 없는 정치가 아닌 미래를 여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 전체가 참화와 쇄신의 자세로 임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오늘의시

연륜(年輪) / 김기림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갈리는
서른 나문 해아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글 두 글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털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욕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동북제대 영문과 졸업.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돌리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3년 구인회에 가입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에 실험했으며 광복 후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곧 전향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속’ 등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되고 광복 이후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다.

독자광장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정읍시 농축산업의 새로운 도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 앞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우리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내수 침체와 수입산 공세로 설 곳을 잃어가는 축산농가에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정읍의 생산자들에게 그레도 말하고 싶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읍이 가진 경쟁력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내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농축산물을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과 함께 자국 농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을 향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

구도 예상돼 대한민국 농축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2011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20억 8천100만 달러, FTA 발효 전 5년간의 연평균 13억 1천900만 달러 대비 무려 57.8%가 증가한 바가 있다.

우려대로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전복 축산업의 1번지인 정읍시의 농축산 농가는 이미 어려운 내수 시장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총체적 난국인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나고,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고 했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우리 정읍시가 가진 시스템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읍시는 올해 16억 7,400만 원을 투입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미래 성장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구축과 방역 강화 등의 조치는 미국산 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면도 있다. 한우, 돼지고기 등 지역 특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 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규모 농가로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맺어 타 지자체와 축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세 철폐 요구나, 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이 발달한 정읍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라는 폭풍의 전야를 지나고 있다. 이 거센 폭풍을 피해 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번 위기는 정읍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필요한 지금, 정읍시는 변화의 중심에서 더욱 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문화재열전



백련사 정관당 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형건조물, 종교신앙, 탑

- 지정일 - 1982년 8월 30일

- 소재지 -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936-1번지

JBT 전북타임즈 Jeonbuk Times 2015.05.13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친환경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정읍시 천혜의 자연환경 배경 시민 체감 사업 육성 박차

사람과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꿈꾸는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관광지 육성,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 미세먼지악취 저감 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선도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대비 106%나 증액된 90억원의 예산을 편성,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정읍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확고한 의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내장산 품은 정읍, 생태탐방로 확대·정비로 '걷고 싶은 도시' 명성 잇는다

정읍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도시답게, 시민과 탐방객에게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 일대는 이미 잘 조성된 생태탐방로와 돌레길로 명성이 높다. 그림 같은 내장호 돌레길,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100주년 기념탑 옆에 설치된 스카이워크가 인상적인 마루길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지난 2023년 솔티마을에 문을 연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는 교육실, 체험실을 갖추고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살아있는 야외 현장학습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시는 방문자센터에서 화전민터를 거쳐 죽림마을로 이어지는 '성지길 탐방로' 조성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 권리이자 행복의 조건이다. 시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에는 더욱 강화된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총 96개소의 대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장당 최대 360만원까지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나 깨끗하게!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 구축

일상생활에서 공중화장실의 청결도와 안전성

내장저수지·월영습지 생태탐방로 정비 및 옛길 복원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악취 저감 등 다각적 노력

나아가 월영습지 탐방객과 시민들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과거 주요 길목으로 사용되었던 죽림마을과 월영습지를 연결하는 옛길 복원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원계획변경·탐방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탐방로 조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세대 위한 투자, 전북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 정읍의 힘찬 발걸음

정읍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환경교육 시범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 사례로, 시가 환경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쾌거다.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시민이 만드는 green 정읍'이라는 비전 아래, 시는 앞으로 3년간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0개의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시는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정읍교육지원청,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기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환경교육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도시 운영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숨쉬기 편한 정읍, 첨단기술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저감 총력

깨끗한 공기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기본적

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시는 지역 내 19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중화장실 260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3스페셜 정읍' 프로젝트로 시민 삶의 질 '쑥'

각종 생활·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3스페셜(Stink-Stop-S(샘)정읍)'이라는 독창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시설 개선 지원과 감시체계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악취 저감 사업에는 총 4억 1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탈취탑 설치, 악취 발생 시설 밀폐화, 미생물제를 활용한 악취 저감 등 총 9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시설 개선 지원과 함께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또한 대폭 강화한다.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처분을 내려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악취방지법·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등에 대해 총 84건의 행정처분과 17건의 사법처분을 단행하며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 공중화장실 점검
2. 생태로탐방로 조성
3. 생태로탐방로 전경
4. 미세먼지 저감
5.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악취대응반 인력을 2명 증원하고 무인악취포집기 4대를 추가로 설치해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시의 이러한 다각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읍=김정인 기자